



이웃 동네 라오스 이야기



1. 사택 건축 및 입주 완료 . . .

‘나사라’ 마을에 새로운 처소를 건축하고 무사히 입주 했습니다.

작년 말에 시작한 사택 공사는 새 해 초가 되어 완성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평안히 새로운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공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며 마음을 다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특별히 셋째 누님이 만든 **작품판매 바자 수익금**과 ‘전주 온누리 기금’의 귀한 도움을 통해 무난히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사택의 건평은 16평이며 마당 앞쪽에 원래부터 있었던 낡은 옛날집은 기회와 상황이 되는데로 조금씩 고치고 손질하여 사역을 위한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새로 건축한 이 처소는 저희들이 새롭게 정착을 시작한 이 곳에서 지역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한 그리고 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한 복된 처소 이자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할 행복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주시는 복된 **꿈**을 그려 봅니다.

사택 건축



마을에서 건축일이 가능한 몇몇 사람들을 소개 받고 짧은 기간 그들과 함께 열심히 수고하여 새로운 사택 공사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처소는 3차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행복한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꿈을 향해 달립니다



2. 계속해서 진행중인 사역 . . .

현재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가있는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올 해 6월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공부방을 운영 관리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한동안 문을 열지 못하다가 최근 라오스 정부의 완화 조치로 인하여 다시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동안의 어수선한 공백을 채워 가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만 보이지만 찾아오는 아이들의 눈빛과 그들의 열심을 보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3. 이장 및 지역 학교들 방문 . . .

새로운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기회가 될 때마다 새로운 지역에 살고있는 지역민 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매 순간 지역의 상황을 두루 두루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라는 나라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에 있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많은 날 많은 시간을 들여 마을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친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을 통해 신뢰할만한 관계로 발전하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함께 다양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지역주민이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나싸라 마을, 동방 마을 이장 및 관계자들과 미팅 &

동방 유치원, 동방 초등학교, 나싸라 초등학교, 동방 중고등학교장 및 관계자들과 미팅)

4. 지역 78 방문 . . .

현재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싸이타니’지역입니다. 이 ‘싸이타니’ 지역에는 유난히 ‘몽 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은 인도차이나 전쟁(=베트남 전쟁)때 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제대로 된 대접이나 인정을 못 받고 살아온 연약한 종족입니다. 이들은 늘 차별과 소외속에 있으며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상처 때문인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종 족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고 감사한 일은 이 연약한 이들 가운데에도 그분이 예비하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일꾼이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조차도 아버지는 당신의 사람들을 심으셨고 그들과 더불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은 큰 기쁨이고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모두 17개의 크고 작은 형태의 78들이 있고 그 중 7개는 ‘몽 족’ 78 입니다. 어떤 ‘몽 족’ 78는 아직 함께 이브드릴 공간이 없어서 어느 장로님 집에서 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편리하고 좋은것들을 넘치도록 누리며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것처럼 여전히 힘겨루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인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과연.. 어떤 **꿈**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 78 해주세요

- @ 지역에 잘 정착하여 신뢰할만한 관계를 쌓고 그 속에서 예비된 만남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 @ 깊은 지혜와 통찰력으로 지역과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 @ 6월까지 예정된 학교 사역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 남겨진 잔여 공사와 앞 마당에 있는 오래된 낡은 건물을 효과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